

# 희년을 살아가자!

아르스의 성인 사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주소서!

2024년 11월 1일

2025년 11월 1일.



## 목차

기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3
아르스의 성인 사제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희년"이라고 하셨나요?.....	7
"주빌레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	9
전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	11
<b>2025 아르스 주빌레 여정 .....</b>	<b>12</b>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와 함께 하는 기도.....	23
성지 배치도.....	27
성지 탐방 .....	28
희년 기도 .....	31

## 기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202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 2025주년을 기념하는



보편적인 회년을 선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해인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우리는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시성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 평범한... 비범함

장-마리 비안네는 아주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단순한 사제'로 살았습니다. (40년 후 리지외의 성녀 테레즈에 대해 말하듯이)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한 사제가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치며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원치 않게 사제가 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종이 되었고, 기도가 호흡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주교에게 순종하며 현실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소녀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하며, 마을의 삶을 새롭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며 고해성사의 일종의 순교와 '같은 헌신으로 실현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영원한 미소, 친절함, 그리고 선의를 잃지 않았으며, 정의와 권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에 "사목 활동과 성스러움에 있어, 영혼의 회심을 위한 기도와 고행에 전념하는 비범한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sup>2</sup>]. 그의 비밀은, 숨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하느님과의 일치와 감사의 행위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고,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난 (심지어 모함적인 비방)은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하느님께 영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악마(일명 '갈고리')가 그를 끝까지 괴롭히며 결코 편히 자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제가 200여<sup>3</sup> 년 전 주님께서 그의 교회 전체에 주신 보물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랑스 사제들의 수호성인'이며<sup>4</sup>, 더 나아가 '전 세계<sup>5</sup> 모든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주어졌습니다.

<sup>1</sup> 요한 바오로 2세의 표현

<sup>2</sup> 1980년 파리 노트르담에서의 사제들에게 한 담화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1986년 10월 6일과 7일 아르스와 리옹-사툴라스에서 재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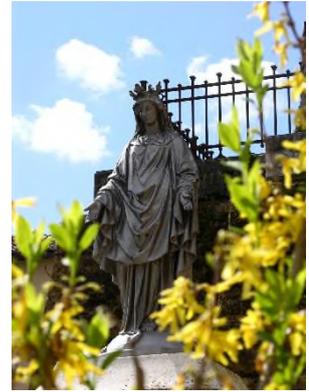
<sup>3</sup> 장 마리 비안네는 1786년 5월 8일에 태어났다; 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1986년 10월 6일과 7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르스를 방문하였다.

<sup>4</sup> 성 교황 비오 10세, 1905년 4월 12일.

<sup>5</sup> 교황 비오 11세, 1929년 4월 23일.

## 아르스에서 무엇을 찾으시나요?

비교해 보자면: 루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순례자들에게 어머니의 다정함과 병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르스에서는, 장-마리 비안네를 찾아오는 이들이 사제를 찾고, 그가 지닌 목자의 아버지 같은 시선, 그리고 그에게서 넘쳐나는 천주의 자비를 찾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입니다."라고 아르스의 성인 사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은 사제를 통해 각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목자 없는 군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떨리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던 자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각 교구민과 순례자에게 제공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장 마리 비안네 안에서 이루신 것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시대는 변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의 마음을 적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를 신앙과 복음의 그러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제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활동 중에 결코 혼자 아니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직무에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바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사랑을 증가시키실 만큼 충분히 강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sup>6</sup>.

*바로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장-마리 비안네는 우리에게 이를 매일 보여줍니다. 오늘날 순례를 오는 여러분이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레미 그리보 신부,  
아르스 주임-원장 신부



<sup>6</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생활과 직무에 관한 교령, 22항.

## 아르스의 성인 사제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모두를 향한 성덕의 부르심

"내가 너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장-마리 비안네는 아르스로 가는 길을 알려준 어린 양치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길,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법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따르도록 초대합니다. 간단히 말해, 성인이 되는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 성인 장-마리 비안네는 누구인가?



1786년 5월 8일 리옹 근교 다르디유의 농부 가정에서 태어난 장-마리 비안네는 20세 때 에퀴리의 발레 신부에게서 사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15년 사제 서품을 받고, 1818년 아르스로 파견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성당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밤낮으로 성체 앞에서 기도하며 교구민들의 회개를 위해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점점 그의 설교와, 특히 그의 기도와 삶의 증언을 통해 교구민들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그는 성당을 복원하고 아름답게 꾸몄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아원 '라 프로비덴스'를 설립했습니다.

### 교구의 중심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그는 인간의 모든 측면(인간적, 영적, 사회적)을 고려하려 했습니다. 모든 이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고통과 상처를 달래며, 가장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건설가였습니다: 고아원, 학교, 성당, 성당 등을 세웠습니다.

하느님과 교구민, 순례자들에게 온전히 바쳐진 사제로서, 그는 1859년 8월 4일 선종했습니다. 1902년 시성 절차를 위해 그의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그의 몸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25년 5월 31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 그의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성인 사제는 성체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체를 경배하고 봉헌하는 성체의 사람이었던 그는 "성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주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바치는 미사는 곧 그의 삶과 사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기도의 사람

이른 아침부터 성체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그는 하느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나누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었으며, 그의 얼굴은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의 깊은 기도 생활을 느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큰 기쁨이자 하느님과의 진정한 친교의 장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해성사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용서와 평화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내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교리 교육과 강론은 주로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고해성사의 순교자



1830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스로 와서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1858년에는 8만 명 이상). 그는 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루 17시간 이상을 고해성사실에서 보내며 사람들을 하느님과 그리고 서로와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는 인간의 소명에 경탄하며 하느님과 분리되는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 인간의 구원에 사로잡힌 이

아마도 이것이 아르스에서의 41년 동안 성인 사제를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일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특히 그에게 오는 이들이나 그의 책임 아래 있는 이들의 구원에 사로잡힌 사람.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

## 전 세계 사제들의 수호성인

1905년 시복된 그는 같은 해 4월 12일 성 비오 10세에 의해 '프랑스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1929년, 시성 4년 후,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했습니다.

1986년 아르스를 순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스의 성인 사제는 모든 나라를 위한 탁월한 모델입니다. 사목 직무의 완수와 사제의 성덕 모두에서요."

## "희년"이라고 하셨나요?

### 주빌레란 무엇인가?

주빌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기념일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의 요청에 따라 50년마다 기념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므로, 이스라엘은 이 은총을 거룩한 시간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빛을 탐감받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빌레는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반으로 '25년마다' 기념됩니다. 이 전통은 13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천주의 자비의 풍요로움을 열어줍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의 완전한 일치 회복하고, 새롭게 넘치는 삶의 기쁨을 맛보도록 널리 제공됩니다.

### 왜 아르스에서 주빌레를 기념하는가?

1925년 아르스의 성인 사제가 시성되었습니다. 성인 장-마리 비안네는 공식적으로 전 교회를 위한 성인으로 인정받았고, 모든 이에게 모범으로 주어졌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여전히 현존하고 생생한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가 교구민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그에게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르스의 성인 사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소서!"는 자연스럽게 이 주빌레 해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 희망의 주빌레와의 연결점은?



2025년, 장-마리 비안네의 시성 100주년을 기념하며, 아르스 성지는 교황이 원한 전 세계적인 주빌레에 특별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빌레의 두 배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 '희망의 순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도록 조화를 이룹니다.

### 전대사(全大赦)란 무엇인가? (27페이지 조건 참조)

전대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준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주의 자비의 순전한 무료 선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시는"(성인 장-마리 비안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해성사에서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잠벌(暫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무질서로, 이 무질서는 보상과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성사적 용서를 받은 후 '보속'을 수행하여, 주어진 은총과 함께 하느님의 사업에서 보상에 기여합니다.

전대사는 이미 사라진 죄로 인한 잠벌을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비의 특별 주빌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모순들로 표시됩니다. 화해의 성사에서 하느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들은 실제로 지워지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는 죄의 부정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이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전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에게 다가가, 죄의 결과로 남은 모든 것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죄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얼굴』, 자비의 특별 주빌레 선언문, 22항).



## "주빌레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27페이지의 지도를 참조하세요.

우리가 제안하는 주빌레의 과정(12페이지의 여정에도 통합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빌레의 은총, 특히 전대사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마음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1. 순례자로서 입구를 통과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침 :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의도를 내려놓고 성인 사제의 희망에 관한 말씀을 받으세요. 천사들의 성당(지도상 3번 - 왼쪽 첫 번째 성당).

### 2. 고해성사와 화해의 성사를 받음: 하느님의 자비 속에 빠져들기

아르스에서 또는 아르스 방문 전후 몇 일 동안. [고해성사 시간: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에케 호모 성당(지도상 3번 - 오른쪽 첫 번째 성당) 또는 대성당 입구 오른쪽 끝의 고해소.

### 3.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함 :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양식으로 삼기

[평일: 오전 8시 45분, 11시, 오후 6시 - 주일: 오전 8시, 9시 30분, 11시, 오후 6시] 대성당 또는 자비의 성모 교회(지도상 5번).



#### 4. 보편 교회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살아내기 : 하느님과 친교와 성인들의 통공에 들어가기

-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기원, 목주 기도... [매일 오후 5시 목주 기도, 주일 제외] 성모 성당(지도상 3번 - 오른쪽 두 번째 성당).

+ 아르스의 성인 사제에게 기도하기(사랑의 행위) 성유물 성당(지도상 3번 - 성당 오른쪽 첫 번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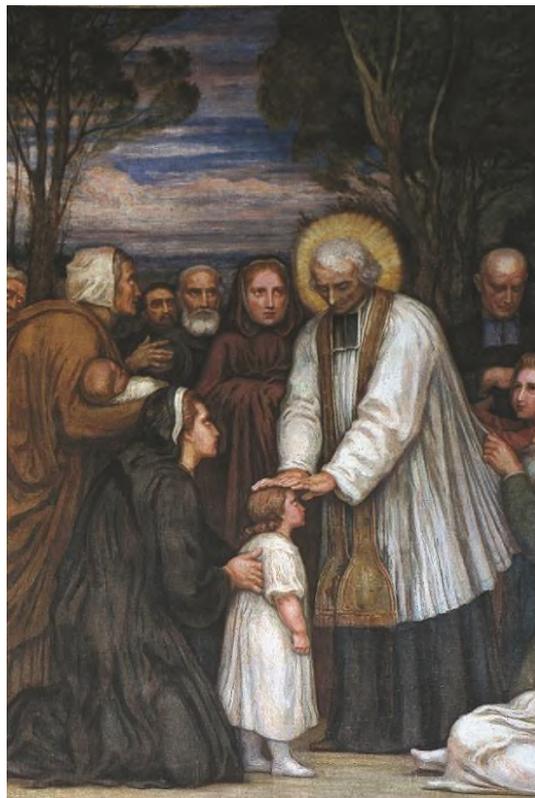
+ 사도들에게 전해진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주체대 앞(지도상 3번).

+ 교황의 의도를 위해 기도하기 마음의 예배당(지도상 15번).

#### 5. 구체적인 자선 행위를 실천하기: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증언하기

아르스에서 실천할 행동을 선택하세요[병자 방문, 화해의 행동, 궁핍한 이들을 위한 기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내와 관심을 보이기 등].

개인적인 여정을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는 성당 사무실 또는 안내소에서 제공됩니다.



## 전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규범 17항 1절).

또한, 모든 죄(경죄 포함)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전대사와 관련된 행위[아르스에서 제안된 과정]를 수행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해성사,
2. 성체성사,
3. 교황의 의도를 위한 기도(규범 20항 1절).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나 고인을 위해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생존자를 위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규범 3항).

### 추가로 할 수 있는 일:

- 성인 사제가 기도하고 살았던 장소를 탐방하기: 그의 성당, 사제관(26페이지 '성지 탐방' 참조).
- 심장 성당(지도상 15번)에서 성인 사제에게 사제들을 맡기기.
- 프로비덴스 성당에서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특히 사제 소명을 위해 기도하기(지도상 13번).
- 만남의 기념비(성지에서 15분 거리)에서 장-마리 비안네와 어린 양치기의 만남 장소를 찾기(지도상 7번).

성인 사제의 학교에서 여정을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영적 여정도 있습니다(안내소에서 정보 제공 - 지도상 10번).



## 2025 아르스 주빌레 여정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로마1,7)

### 여정 소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마태 5,48).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27).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무료로 주어진 은총을 통해 그분의 성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생각에서 온 것일까요? ...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는 부르심, 즉 성인이 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우리를 성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와 함께 읽을 때, 인간은 다시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성 암브로시오)

성지 지도 (27페이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첫 번째 단계: 하느님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

성인 사제의 집 우물(지도상4번)

### • 성 요한 복음서(4, 5-9)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인 시카르에 이르렀다. 이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였다.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은 길에 지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 때는 제육시, 곧 정오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실 것을 좀 달라.'—사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로 갔던 것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 '어떻게 유다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 •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복을 기다리고 바라는가? 일시적인 기쁨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한번 이루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 즉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행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으므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로마 8,38-39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2025 주빌레 선언문 발췌)

### • 아르스의 성인 사제와 함께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크고 넓은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설교 「그리스도인의 성화」 I-128)

### • 성찰 주제

나는 왜 아르스에 왔는가?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 내 삶에 대한 모든 질문, 내 걱정, 내 불안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하느님?

## • 조치

우물 위로 몸을 숙여 바닥에 쓰여진 것을 읽으세요.

그런 다음 정원을 지나 촛불 랜턴으로 가며 묵상하세요.

## 제2단계: 하느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피조물을 만나러 오시다

초 등불, 성당 앞 계단을 향해(지도상 8번)



### • 성 요한 복음서(4, 10-15)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네가 하느님의 선물과,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말했다. '주님, 주님께는 길을 물을 것도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이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말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물을 길으러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 묵상하기 위해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코 의심하지 마라. 너는 모든 상황에서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 너는 네 생명을 주시고 항상 그것을 주시는 하느님, 네 신성한 아버지의 품에 자신 있게 안길 수 있다. 그분은 너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며, 동시에 그분이 끝까지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경매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에 빠져보라."(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Christus vivit), 2019년 시노드 후 권고 발췌)

### • 아르스의 성인 사제와 함께

장-마리 비안네는 한 늙은 농부가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그는 그 농부에게 하느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지역 방언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J'l'aveuse, pel'm'aveuse"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본다). 이

'aveuser'라는 단어는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흙을 손바닥에 담아 더 잘 보고, 만지며, 그 풍요로움과 가능한 비옥함을 알려고 하는 행동을 특징짓는다.

### •성찰 주제

우리는 방금 성인 사제와 함께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를 보았다... 아르스의 성인 사제의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깊이 하고,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감사하는가?

주님,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 •조치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 말을 반복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의도를 성인 사제에게 말킨다. 이를 위해 문 근처에 마련된 공책에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교회 앞으로 간다.



### 3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난함을 드러내기

입구 문을 지나 성해함으로  
(지도상 12번)



성인 사제가 자비롭게 많은 이들을 맞이하고 화해의 성사를 베풀었던 이 교회의 입구 문을 지나며, 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인 사제의 희망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인 후, 성인 장-마리 비안네가 안치된 성유물 안치소로 향합니다.

#### •성 요한 복음서(4, 16-21,23-2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인이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옳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한 말은 참이다.' 그 여인이 말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예언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 그 때가 오고 있다 - 지금이다 -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 •묵상하기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아주 작은 빛의 틈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시며, 그렇게 해야만 그분의 용서와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자비의

부드러움에 감동받고 어루만져진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예수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의 죄라고 말한다.

자비의 포용을 경험하고, 그 포용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을 때, 삶은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눈에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거대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 배신, 부인, 비참함을 아시는 하느님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신다."

"모든 남자와 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며, 땅에 엎드려 자신의 상처를 훑으며 머물지 않는 것이다. 자비의 주님은 항상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에게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사랑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교황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A. 토르니엘리와의 대화, Robert Laffont, 2016, 발췌)

### •아르스의 성인 사제와 함께

"성도들은 모두 잘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좋은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시작했지만, 잘 마치자!"(Esprit 63, de la Bastie Annales 1910, 312, 설교 「성덕」 IV 143)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다."(Esprit 170)

### •성찰 주제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걸하는 가난한 자와 같은가?

["인간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가난한 자이다."(성인 장-마리 비안네)] 나는 나의 비참함보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더 깊이 깨닫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 다가오시고, 나의 가난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사랑합니다!

### •조치

고해성사를 준비하세요(고해소 근처에 준비된 안내문 참조), 또는 통회의 기도를 바치세요.

성해함 앞에서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사랑의 기도문을 (p. 23) 기도하세요.

나가기 전에, 열두 사도가 그려진 주제대 앞에서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를 기도하세요.  
성가대석 문을 통해 나가 다음 단계인 심장 성당으로 향하세요.

## 4단계: 선교적 제자로 변모되기

심장 성당  
(지도상 15번)



### • 성 요한 복음서(4, 28-30, 39-42)

"그 여인은 물동이를 그곳에 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말해 준 사람을 보러 오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마을을 나와 그분께로 갔다.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 여인이 말했다. '그분은 내가 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셨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이제는 네가 한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 • 묵상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성도의 군대는 나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나를 이끌어 준다. 우리를 격려하고 동기 부여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모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신자가 자신의 길을 분별하고, 주님이 자신 안에 심어 놓으신 진정한 개인적인 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모방하느라 지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증언의 다양한 실존적 형태가 있다... 너의 삶을 통해 하느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성령으로 인해 변모되고 새로워져 이를 가능하게 하라. 그래야 아름다운 너의 사명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너의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이루실 것이다. 단지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화하고 비추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행동에 항상 열려 있기만 하면 된다."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현대 세계에서 성덕에 대한 사도적 권고, 2018 발췌)

## •아르스의 성인 사제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찾으라. 외적인 효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을 찾으라. 그러한 사랑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선한 목자의 목소리』, 1861, 10)

## •성찰 주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장하고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변모되고 복음화되어야 할 이미지일 것이다.

나는 어떤 증언을 놓쳤는가? 주님, 나에게 어떤 증언을 요구하시는가?

## •조치

저는 제 성소의 길에서 성성으로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느님, 매일 저를 부르시는 성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더 주의 깊고 관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를 비추시고 인도주소서.

예수님, 당신의 성심은 "선물"이기에, 우리 가정과 본당, 교구에 거룩한 사제들, 거룩한 그리스도인 가정들, 거룩한 수도자들과 봉헌된 이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 성 장 마리 비안네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부르시는 사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교구의 사제들, 내 주교, 우리 교황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길에서 만난 모든 사제들, 살아계신 이들과 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인 장-마리 비안네의 중재를 통해 그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심장 성당에 비치된 등록부에 사제들의 이름을 적고,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단계인 프로비텐스 성당으로 가며 성모송을 바치세요.

## 5단계: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다

프로비덴스 예배당  
(지도상13번)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맞이합니다.

당신 현존 앞에 저를 드러내고 바칩니다.

오늘의 성체성사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난한 마음을 당신께 바치며 당신 성심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 • 요한복음에 따르면 (4:27,31-34)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드십시오.' 하고 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떡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다.' 제자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드릴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 • 묵상하기위해

"십자가 앞에서 있거나 성체 앞에 무릎 꿇고 단순히 그분의 시선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만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을 가져다주는가! 결국,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1요한 1,3)는 것이 일어난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가장 좋은 동기는 사랑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그 페이지에 머물며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에 접근할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매번 우리를 매료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선물을 매일 재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현대 세계에서 복음 선포에 대한 사도적 권고, 2013 발췌)

## •아르스의 성인 사제와 함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답다."(Esprit 24, Monnin 429)

## •성찰 주제

이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받은 복음의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남아 있고 나를 깊이 감동시키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는가? 나는 그 말씀과 함께 머물며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내면에서 부드럽게 여러 번 반복하고, 기억한다. 그것을 적을 수도 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선물, 어떤 은총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하시는가?

이 새 생명을 받은 감사의 표시로: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한 '사랑합니다'로 만들겠습니다!

## •조치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기도하고 자선이나 화해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응답을 적을 수 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응답하고 싶습니다.

...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에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강력한 성령의 도움으로 ...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 마침기도

주빌레 기도(31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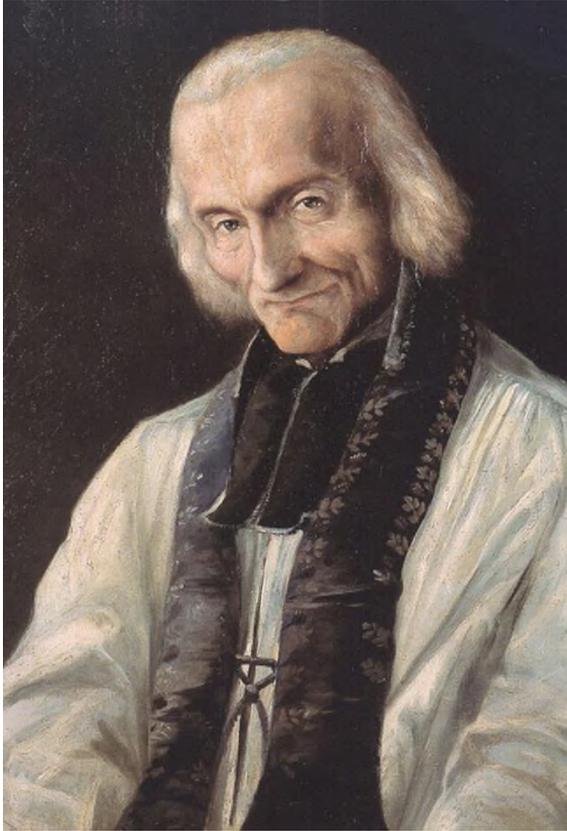
아르스의 성인 사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와 함께 하는 기도

###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의 사랑의 행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의 유일한 소원은 내 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무한히 사랑하실 만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보다는 당신을  
사랑하며 죽는 것을 더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는 단지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위해 천국을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달콤한 위로를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만약 내 혀가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마음이 내가 숨 쉬는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반복하길 원합니다.

아! 당신을 사랑하며 고통받는 은총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어느 날  
당신을 사랑하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숨을 거두게 하소서.

내 생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당신께 나의 사랑을 더욱 증가시키고 완전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멘.

### 성인 성직자에게 드리는 기도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여,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중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흔들림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끈질기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경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체를 믿음과  
경외심으로 접근하고, 성체 안에 계신 침묵의 임재를 맛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하느님의 자비의 큰 산에 비하면 모래알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족쇄를 풀어 주소서. 끊임없이 탕자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우리의 감사를 키워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를 증가시켜 주소서.

당신은 가난한 이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나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돈과 모든 거짓된 부에 대해 자유롭게 해 주소서.

당신은 성모 마리아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애정"이었던 성모 마리아에게 아이처럼 단순하고 신뢰하며 돌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온 세상의 성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목적 자비가 사제들로 하여금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 사도적 열정, 시련 속에서의 용기를 주소서. 젊은이들에게 사제직의 위대함과 선한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을 일깨워 주소서.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여,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여기에 특별한 청원을 적으세요]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당신은 겸손하고 충실한 목자로,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이-마리 바냐르 주교 & 파스칼 롤랑 주교



##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이, 저에게 "천국의 길",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의 길을 보여 주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행복을 주소서.

성체와 고백 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법을 더욱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복음이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침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하소서.

당신은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처럼 좋은 목자가 되도록 도와 주소서.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여, 제 안에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 주소서. 아멘.

## 소명을 위한 기도

주 예수님, 당신은 교회 안에 아르스의 성인 성직자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과 놀라운 사목적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겸손한 인내와 끈기로 사제직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사제로서, 그는 성체 성사와 침묵의 경배, 복음 안에서 사목적 사랑의 열정과 사도적 열의를 얻었습니다.

그의 중재를 통해:

-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그들이 그의 삶의 본보기를 따라 당신을 따르는 용기를 얻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 사제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께 열정과 깊이로 헌신하고, 성체와 하느님의 말씀, 용서와 형제적 사랑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 복음의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인 가정을 견고히 하소서. 그들이 특히 당신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을 지원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당신의 추수에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 시대의 복음적 도전에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 사제들을 위한 기도

주 예수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이와 함께 우리가 아는 모든 사제들, 우리가 만난 모든 사제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도운 모든 사제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모든 사제들을 당신께 바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손에서 오는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함께 당신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은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열정과 사랑으로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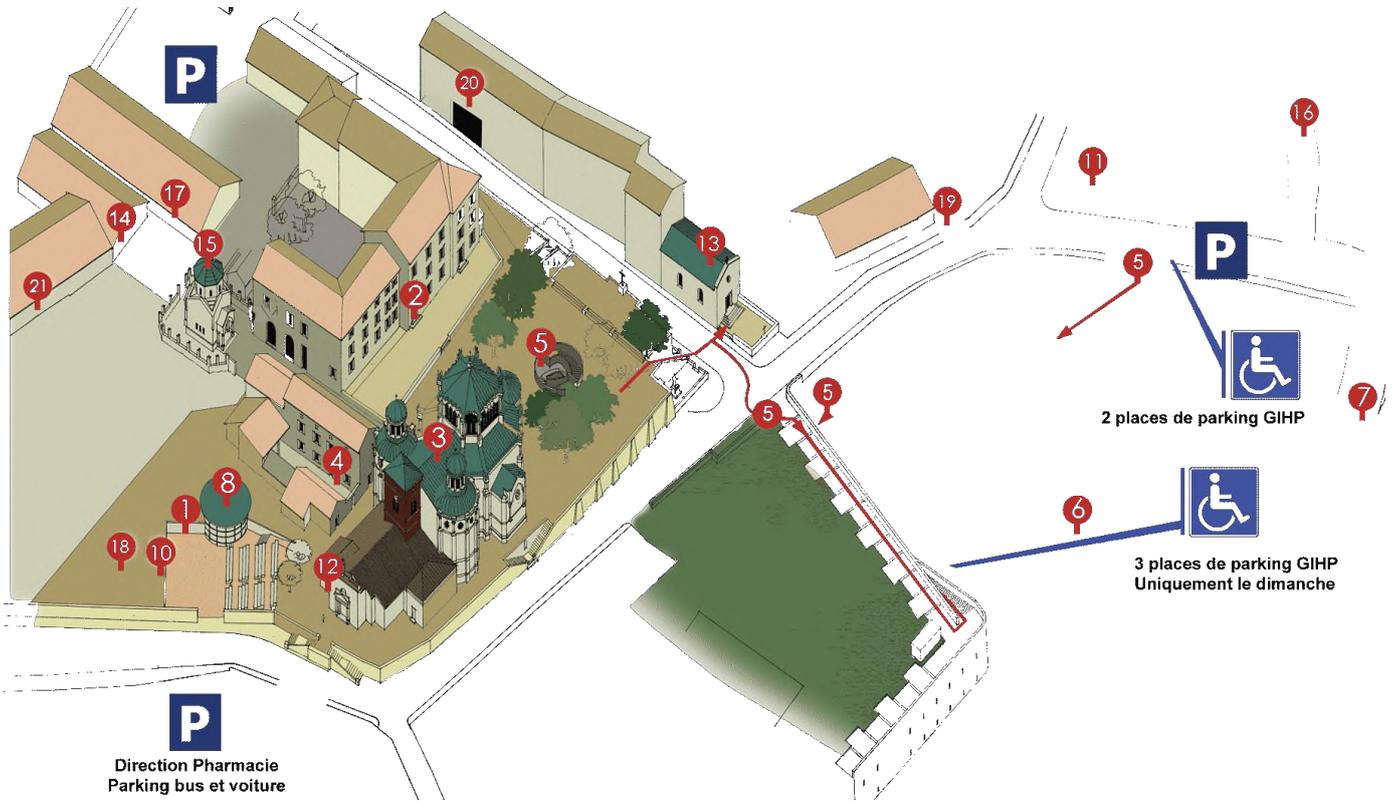
그들에게 힘과 신뢰와 기쁨을 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거행하는 성체 성사가 그들을 양육하고, 당신과 함께 양떼를 위해 자신을 바칠 용기를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자비의 심연에 잠겨 당신의 용서의 끊임없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참된 경배자가 되어 우리에게 성덕의 참된 길을 가르치게 하소서. 당신의 영의 숨결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심장 성당의 수첩에 기도하고자 하는 사제(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성지 배치도



## 성지 탐방

### 1 환영 - 여러 가지 제안:

✓ 예약제 안내 투어.

✓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2개의 영상: "성인 아르스의 성직자의 삶"(프랑스어 15분 또는 다국어 52분)"천국의 길: 오늘날의 아르스"(프랑스어 30분).

✓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 당신의 의도로 미사를 봉헌.

✓ 4가지 영적 여정.

✓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발견 게임 및 문화 여정.

### 2 현재 사제관: 과거 "노트르담 데 장쥬 호텔"이었으며, 성인 성직자의 사망 후 사제관이 되었습니다.

### 3 성인의 교회: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에 도착했을 때, 12세기에 지어진 성 식스투스 교회는 단일 본당과 성모 마리아 예배당만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다른 예배당을 짓고 전체를 정비했습니다. 왼쪽에는 그가 설교했던 설교단이 있고, 맞은편에는 그가 교리 교육을 했던 작은 설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해성사소는 옛 성물실에 있으며, 옛 주체대는 성 요한 바오로 예배당에 있습니다.

### 4 성인의 집: 가레 백작부인이 제공한 이 집에서 아르스의 성직자는 가난한 교구민들과 같은 생활을 위해 값진 가구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41년을 살았으며, 집은 그가 사망한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방과 개인 소지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5 에스플라나드 십자가: 1847년 7월에 설치된 이 십자는 한 선교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자비의 성모 교회(지하 교회)로의 접근: 1959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20세기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6 초원에는: 십자가의 길, 성인의 동상 및 제대.

**7 만남의 기념비:** 1818년 2월 9일, 리옹 북부의 에컬리 교구에서 출발한 장-마리 비안네는 아르스에 도착했습니다. 안개로 마을이 보이지 않자, 그는 젊은 양치기 앙투안 지브르에게 길을 물었고, 앙투안은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안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아르스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앙투안은 또한 아르스 교구의 영토가 그가 서 있던 곳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사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교구민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만남은 그 자리에 동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8 초 랜턴:** 이곳에는 조각가 에밀리앙 카뷰세가 만든, 기도하는 아르스의 성직자의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성인의 교리 수업 중에 모자 안에서 몰래 만든 작은 밀랍 흉상을 바탕으로 이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곳은 초를 켜는 채플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기도 지향을 적어 놓고, 그의 전구를 믿고 기도의 표시로 초를 밝힐 수 있습니다.

**10 매장-서점:** 종교 및 전례용품, 책, 기념품 등이 있습니다.

**11 통 십자가:** 1840년, 아르스의 본당 신부는 자신의 사명이 너무 벅차다고 느껴 첫 도망을 시도했지만, 통 십자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12 성문:** 아르스의 본당 신부가 건축했습니다.

**13 예배당 & "라 프로비당스" 집:** 1824년, 장-마리 비안네는 베노아트 라르테와 카트린 라사뉴에게 "라 프로비당스" 집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고아 소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4 순례자 쉼터** **17 & 영상실:** 순례자 그룹을 위해 사전 예약 시 낮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15 심장 예배당:** 1930년에 지어진 이 예배당에는 성인 성직자의 심장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인의 중재를 통해 기도하고자 하는 사제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16 장-폴 2세 사제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 시 설치된 천막이 있던 자리에 건축되었으며, 장 마리 비안네 협회의 국제 신학교와 체류 중인 사제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18 성인의 정원:** 도착했을 때, 아르스의 본당 신부는 버려진 본당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초대해 과일을 따고, 함께 놀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19 밀랍 박물관 & 관광 안내소:** 그레뱅이 제작한 밀랍 동상을 통해 아르스의 성직자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재현했습니다. 두 가지 공간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그의 시대를 빛낸 주요 사건들. 2 그의 삶의 17개 장면을 따라가는 여정.

## 희년 기도



오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고 모든 이를  
성덕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즉  
아르스의 성 체봉 사제의 모범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그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 은총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힘이 되어 주시나이다.  
그의 기도와 함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빛어 주소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러 보내시는 곳에서  
당신의 사랑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희망 안에서 우리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가난함과 풍요함을 안고, 우리도  
겸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늘의  
증인, 성스러운 제자-선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